

2024년 10월 30일 제39호

연 구 원 이 예 린  
연 구 원 김 종 현  
연 구 위 원 김 분 태

# HIF 월간 산업 이슈(10월)

## Monthly Industrial Issue

### 산업별 주요 이슈

#### 철강 철강업, 원가 부담 가중되고 업황 정체에 따른 실적 회복 시기 지연

- 건설업 등 전방 수요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경기 침체에 따른 밀어내기 수출 등으로 철강업 불황이 장기화되며 철강사들의 3분기 실적도 저하된 것으로 파악
- 산업용 전기료 상승으로 철강사의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도 전방 산업 회복이 지연되며 '25년 철강사의 실적 개선폭은 제한적일 전망

#### 조선 3Q 양호한 성장세, 그러나 중국 생산능력 확대에 따른 영향 우려

- '24년 대량 수주에 의한 기저효과로 인해 내년 신조 수주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조선소의 증설로 글로벌 수주 경쟁이 심화되며 선가가 하락할 전망
- 선가 하락으로 인해 '27년 이후 인도될 물량의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며, 증설을 바탕으로 한 중국 조선소의 가격 우위 전략으로 인해 국내 조선소의 영업환경이 악화될 우려

#### 유통 “불황기, 고객은 떠나도 팬은 떠나지 않는다.”, 팬덤 경제 확산과 영향

- ‘팬덤 경제’는 특정 대상을 향한 유대감과 열정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를 의미하며, 최근 디지털 플랫폼 및 인프라 발달, 가치 소비 확산, 모바일 보편화, 팬덤의 집단적 소비 행태 등에 따라 확대
- 팬덤 경제 기반의 커머스 플랫폼은 팬덤 플랫폼, 라이브커머스, 커뮤니티형 커머스 등이 존재하며, 팬덤 경제는 경기에 비교적 둔감한 특성을 지녀 소비 위축 시기에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 산업 이슈

## 철강

철강업, 원가 부담 가중되고 업황 정체에 따른 실적 회복 시기 지연

## 조선

3Q 양호한 성장세, 그러나 중국 생산능력 확대에 따른 영향 우려

## 유통

“불황기, 고객은 떠나도 팬은 떠나지 않는다.”

팬덤 경제 확산과 영향

## C24. 철강

### 철강업, 원가 부담 가중되고 업황 정체에 따른 실적 회복 시기 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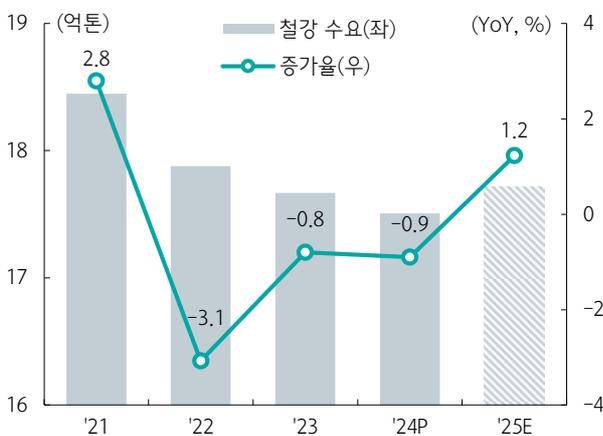
연구원 이예린

※ **Summary** : 장기화되는 건설 경기 침체와 중국발 철강 공급 과잉 문제가 지속되며 철강사들의 3분기 실적도 여전히 부진할 것으로 예상. 철강업의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산업용 전기 요금 인상 조치로 전기로 투자를 확대해 운영하고 있는 철강사들의 재무 부담이 가중되며 4분기에도 수익성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 자동차건설업의 수요 둔화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에도 중국 내수 수요 회복이 지연되며 공급 과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어 '25년 철강사의 실적 개선폭은 제한적일 전망

#### ■ 건설업 등 전방 수요 부진 및 중국 경기 침체로 철강업 불황 장기화되며 3분기 실적 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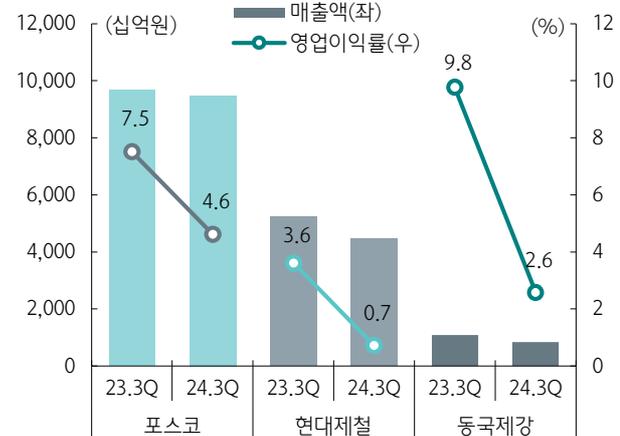
- 건설 시장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내수 부진 및 글로벌 대중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중국산 철강의 국내 시장 잠식이 심화되며 철강업 실적 회복이 지연
  - '24.3Q 기준 중국 철강 수입량은 전년동기대비 4.8% 증가하며 국내 철강 가격 약세가 지속
- 포스코, 현대제철 등 주요 철강 4개사의 3분기 합산 매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7.4% 하락하였고 합산 영업이익률은 3%p 하락한 3.4%로 추정
  - 포스코홀딩스 철강 사업 부문의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45.5% 하락하였고 현대제철의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64%가 하락
- 중국발 밀어내기 수출 영향이 지속되고 중국의 경기부양책에 따른 철광석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산업용 전기 요금 인상 조치까지 더해지며 철강사의 재무 부담이 확대

그림1 | 글로벌 철강 수요 추이 및 전망



자료 : WSA

그림2 | 주요 철강 3개사의 3분기 실적



자료 : 각 사 IR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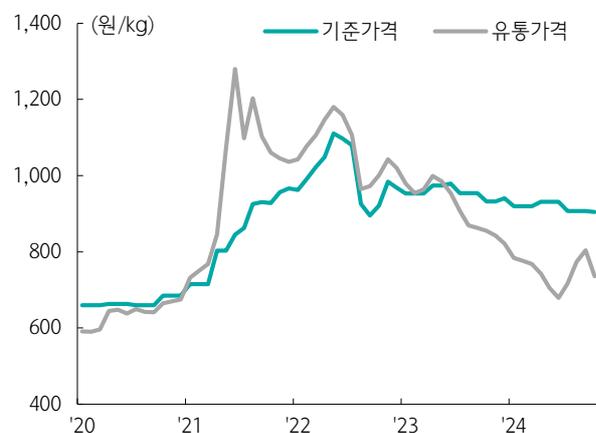
## ■ 철강업계, 전기료 인상으로 비용 부담 증가하며 4분기 수익성 개선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

- 10월 24일부터 산업용 전기 평균 요금이 9.7% 인상되며 그린 철강 전환을 위해 전기료 투자를 확대·운영하고 있는 철강업계의 원가 부담이 크게 증가
  - 대기업 기준 전기요금이 16.9/1kWh 인상되며 철강업의 원가 부담은 약 3,4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
- 4분기 전기료 인상으로 11월 철근 기준가격은 전월대비 1만원 상승할 예정이나 소폭 상승했던 유통시세 가격은 10월 하락하며 전기료 제강사들의 실적 부담이 가중
  - 철근 유통 가격이 철스크랩보다 큰 폭으로 하락하며 스프레드가 축소되어 제강사 수익성이 더욱 악화
  - 철근 유통가(원/kg): 855('23.10) → 784('24.1) → 743('24.4) → 804('24.9) → 754('24.10)
- 전기료 인상에 따른 생산비 부담이 제품 가격으로 전이되면 중국산 저가 철강재와의 가격 경쟁력이 하락해 철강사들의 수익성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도 존재

## ■ 수요 산업 부진 및 중국발 리스크 요인이 해소되지 않으며 실적 정체가 '25년에도 지속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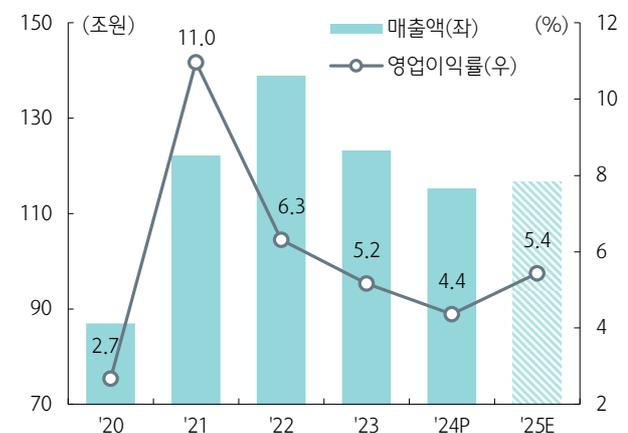
-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의 철강 수요 증가에도 철강 최대 소비국인 중국의 수요 역성장이 지속되며 '25년 세계 철강 산업은 1.2%의 저성장에 그칠 전망
  - 국가별 철강 수요 증가율 전망: (중국)-1.0% (미국)2.0% (한국)-0.6% (일본)1.7% (EU&UK)3.5%
- 中정부가 잇달아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철강업의 구조적 문제와 부양 정책 규모(2.7조위안)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전방 수요 회복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철강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철광석 및 철강재 가격이 반등했으나 단기 상승으로 그침
- 견조한 조선향 후판 수요에도 불구하고 건설·자동차향 내수 부진과 중국 공급 과잉 이슈 지속 등으로 인해 '25년 철강사의 실적 개선폭은 매우 제한적 

그림3 | 철근 기준가격 및 유통가격 추이



주 : 철근SD400 가격 기준, 유통가격은 도매 즉시현금가 기준  
자료 : 스틸데일리

그림4 | 국내 철강업체 실적 전망



주 : 1차 철강 제조업 외감 이상 합산 기준  
자료 : Value Search, 하나금융연구소

### C31. 조선

## 3Q 양호한 성장세, 그러나 중국 생산능력 확대에 따른 영향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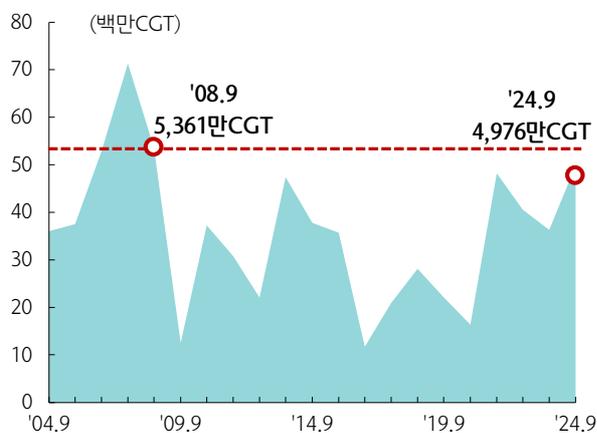
연구원 김종현

※ Summary : 환경규제에 따른 노후선 교체 수요로 인해 전 세계 '24년 9월 누적 신조선 수주 실적은 '08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 '24년 대량 수주에 의한 기저효과로 인해 내년 신조 수주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조선소의 증설로 글로벌 수주 경쟁이 심화되며 선가가 하락할 전망. 수주 시점의 선가는 선박 인도시기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므로 선가 하락이 단기 실적에 미칠 영향은 미미한 상황. 그러나 '27년 이후 중국 조선소의 가격 우위 전략으로 인해 수주 경쟁이 심화되며 국내 조선소의 영업 경쟁력이 하락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국내 조선소의 대응 전략을 모니터링할 필요

#### ■ 환경규제에 따른 노후선 교체 수요로 인해 '24년 9월 누적 수주 실적은 '08년 이후 최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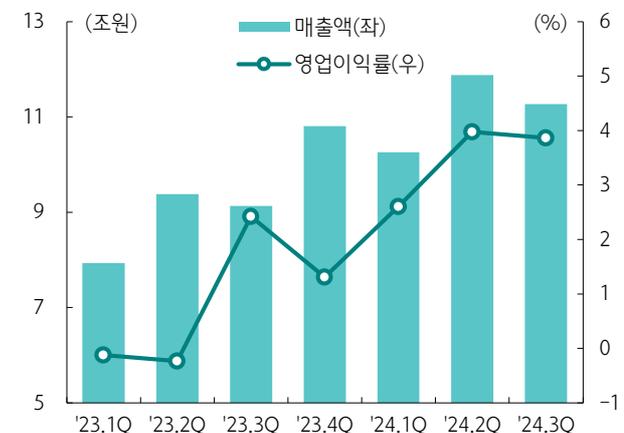
- 환경규제에 따른 노후선 교체 수요를 바탕으로 '24년 9월 누적 수주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40.4% 증가하였으며 '08년 이후 최대 수주 실적을 기록
  - '24년 9월 누적 선종별 수주 증가율 (% , YoY) : LNG선 96.3%, 컨테이너 84.3%, 탱커 48.7%
- 동기간 중국은 조선소 설비 확장 및 저가 수주를 바탕으로 한 공격적 영업 활동을 통해 수주 점유율이 69.0%에 달하였고 한국은 LNG선을 중심으로 수주하며 점유율 18.6% 기록
  - '24년 9월 누적 국가별 수주 증가율 (% , YoY) : 중국 68.4%, 한국 26.6%, 일본 -53.1%
- 한편, 국내 주요 조선사의 수주 점유율은 다소 약화되었으나 '24년 3분기 실적은 既 수주 물량의 인도를 바탕으로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내년도 실적도 긍정적일 전망
  - 대형 조선3사의 '24년 3분기 누적 합산 실적은 YoY 기준 매출액 23.5%, 영업이익률은 1.5%p 증가

그림5 | 글로벌 신조선 수주량 추이



주 : YTD 기준  
자료 : Clarkson, 하나금융연구소

그림6 | 국내 조선사 실적 추이



주: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합산 실적  
자료 : Valuesearch, 각사 IR, 하나금융연구소

■ **기저효과에 따른 신조 수주 둔화와 中 조선소 증설로 수주 경쟁이 심화되며 선가 하락 전망**

- '24년 대량 수주에 따른 기저효과로 인해 수주 둔화가 예상되며 이에 더하여 신조선 대량 유입에 따른 선박 공급 과잉과 환경규제 영향으로 인해 향후 선가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
  - 신조선보다 중고선의 가격 변동성이 더 큰 가운데 신조가 하락은 중고가 하락으로 이어지 면서 중고선가 낙폭이 확대됨에 따라 중고선의 담보가치가 하락할 우려
- '21년부터 '24년 3분기까지 발표된 글로벌 조선사들의 캐파 확대 계획 규모는 총 820만 CGT로, 이 중 재가동은 약 390만 CGT, 신규 증설은 약 440만 CGT (Clarksons)
  - '20년 글로벌 조선소 총 캐파는 약 4천만 CGT로, '30년까지 '20년 대비 약 11% 확대 예정
- 이 중 중국이 약 77%를 차지하며 글로벌 조선소 증설의 대부분을 견인할 예정이며, 중국의 신규 증설 규모는 약 340만 CGT, 재가동 규모는 약 290만 CGT로 추정

■ **선가 하락의 단기 영향은 미미하나 '27년부터 중국과의 가격 경쟁 심화로 국내 조선소의 영업환경 악화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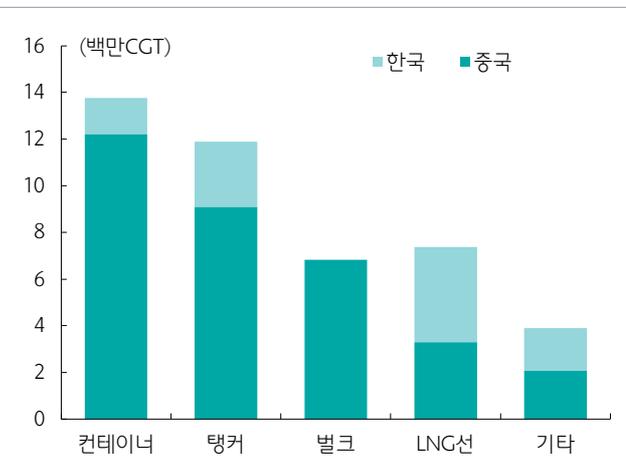
- 현재 국내 조선소의 수주잔량을 살펴보면 '25, '26년 물량은 모두 확보한 상황이므로 선가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약화는 '27년도 수주 물량부터 본격화될 전망
  - 국내 조선소의 연도별 수주잔량(백만CGT) : 12.4('25) → 10.2('26) → 9.0+a ('27) → 3.0+a ('28)
- 국내 조선소의 핵심 수주 선종은 컨테이너선과 LNG선으로 기술 우위 전략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였으나 최근 중국과의 기술 격차 축소로 인해 해당 선종에서도 경쟁이 심화
- 기술 격차 축소로 가격 경쟁력이 더욱 부각되며 中 조선소의 증설과 이에 따른 韓-中 간 가격 경쟁력 격차가 확대되면서 국내 조선소의 영업력 악화가 고착화될 우려
- 국내 조선사의 주요 수주 선종인 LNG선, LPG선 등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제한적이나 중국의 주요 증설 계획이 집중된 벌크선, 탱커, 컨테이너선에서 영향이 클 전망 

표1 | 중국 조선소의 증설 동향

조선소	가동 예상일	생산규모 (CGT)	주요 선종
Hengli SB	2026	831,000	벌크, 탱커
Wison Qidong	2026	-	해양플랜트
Yangzijiang Holdings	2026	-	LNG선
New Times SB	2026	882,00	탱커, 컨테이너
Hantong WinG HI	2026	37,000	Ultramaxes
CMCS	2026	-	크루즈, 여객선
Shanghai Waigaoqiao	2025	973,000	컨테이너, 탱커
COSCO HI (Zhoushan)	2026	384,000	벌크
Chizhou Guichi	2026	-	연안 소형선박

자료 : Clarkson, SK 증권

그림7 | 선종별 한-중 수주량 비교 ('24.9 YTD 기준)



자료 : Clarkson, 하나금융연구소

## G. 유통업

### “불황기, 고객은 떠나도 팬은 떠나지 않는다.”, 팬덤 경제 확산과 영향

연구위원 김문태

※ Summary : ‘팬덤 경제’는 특정 대상을 향한 유대감과 열정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를 의미. 팬덤 경제는 최근 디지털 플랫폼 및 인프라 발달, 가치 소비 확산 등에 따라 확대. 팬덤 경제 기반의 플랫폼으로는 ① 위버스, 버블 등 K-pop 관련 콘텐츠, 굿즈 등을 판매하는 팬덤 플랫폼, ② 유튜브 쇼핑과 같이 인플루언서의 실시간 소통을 통해 판매가 이루어지는 라이브커머스, ③ 무신사, 오늘의 집 등 특정 분야에 대한 관심과 유대감으로 형성된 커뮤니티형 커머스가 존재. 이러한 팬덤 경제는 경기애 비교적 덜 민감하여 소비 위축 시기에 소비재·유통업체에게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

#### ■ 디지털 발달, 가치 소비 등에 따라 특정 대상에 대한 호감에 기반을 둔 ‘팬덤 경제’가 확산

- '24년 4월, 최고 트래픽 960만번으로 콘서트 전석(약 9만석) 매진을 기록한 가수 임영웅의 영향력은 가요계뿐만 아니라 자동차, 건강식품 등 산업계의 매출 신장에도 기여
  - 2020년, 쌍용차의 'G4 렉스탄'은 임영웅을 모델로 내세우며 전월 대비 53%가 증가한 바 있으며, 건강식품 '정관장'은 '임영웅 효과'로 가정의 달 행사 7일 간 전년대비 신규 가입 고객이 72% 증가
- ‘팬덤 경제’는 이처럼 좋아하는 대상(아티스트, 스포츠, 캐릭터 등)에 열정을 가지고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팬덤이 실질적으로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와 관련 소비 행위를 지칭
- 팬덤의 경제적 영향력은 최근 디지털 플랫폼 및 비대면 소통 인프라 발달, 개인적 취향에 중점을 둔 ‘가치 소비’ 확산, 모바일 사용 보편화, 팬덤의 집단적 소비 등에 따라 확대
  - 코로나19 시기, 모바일 활용 확대와 비대면 소통 인프라 증가가 특히 긍정적으로 작용

그림8 | 가수 임영웅 광고 및 효과

[G4 렉스탄 광고]



- 전월 대비 53% 판매 증가

[정관장 가정의 달 행사]



- 신규 가입 고객 72% 증가

자료 : 각 사, 언론자료

표2 | 팬덤 경제 확산의 배경

구분	내용
디지털 플랫폼 성장	- SNS, 스트리밍 서비스의 글로벌 확산 - 유튜브, 틱톡 등으로 글로벌 팬덤 형성
인프라 발달	- 팬과 아티스트 간 글로벌 실시간 소통 가능 - 촬영 장비, 스튜디오 등 인프라 확충
모바일 사용 보편화	- 스마트폰 활용 연령 확대(고령층, 저연령층)로 취향 공유를 위한 커뮤니티가 확장됨
소비 트렌드 변화	- 차별화된 소비 경험에 대한 수요 확대 - 개인적 취향에 중점을 둔 가치 소비 확산
팬덤의 집단적 소비 행태	- 자신이 속한 팬덤 커뮤니티의 목표나 가치에 따른 능동적인 경제 행위(대량 구매 등)를 나타냄

자료 : 하나금융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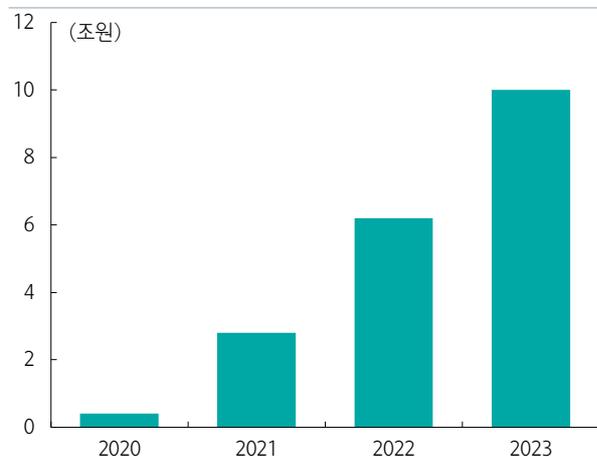
## ■ 팬덤 경제 기반의 플랫폼은 팬덤 플랫폼, 라이브커머스, 커뮤니티형 커머스 등이 존재

- 가장 직접적인 팬덤 기반 사업 모델은 K-pop 관련 '팬덤 플랫폼'으로, 과거 '팬클럽'이 엔터 산업 고도화 및 모바일 기술 발달로 팬덤 경제에 특화된 플랫폼으로 변화
  - 대표적으로 하이브 위버스, 디어유(SM) 버블이 있으며, 위버스는 아티스트 영상,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굿즈 판매 연계, 버블은 아티스트와의 채팅을 유료 회원에게 제공하는 것이 특징
- 또한, 인플루언서와의 유대감이 중요한 라이브커머스 시장은 '20년 4천억원에서 '23년 10조원 규모로 성장했으며, 지난해 유튜브의 커머스 기능 추가 이후 생태계 확장 중
  - '24.5월, 인스타그램은 크리에이터와 브랜드를 연결하는 '크리에이터 마켓플레이스'를 도입
  -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은 기존 자체 제작 중심 모델에 오픈형 모델을 추가·확장하며 대응
- '무신사', '오늘의 집' 등 콘텐츠를 통해 패션, 인테리어에 관심 많은 소비자를 확보한 '커뮤니티형 커머스'는 크리에이터 지원을 통해 콘텐츠 및 소비자 확대를 도모
  - 무신사 : 패션 커뮤니티 '스냅'의 크리에이터 '스냅 크루'에게 혜택 제공(활동비, 화보 촬영 등)
  - 오늘의 집 : 팬덤 및 창작자 커뮤니티 '오하우스'를 통해 크리에이터 활동을 지원

## ■ 소비 위축 시기, 팬덤 기반의 수요 창출은 소비재 및 유통 기업에게 성장 기회를 제공

- 글로벌 마케팅 전문가 데이비드 미어먼 스콧은 "불황기, 고객은 떠나도 팬은 떠나지 않는다"며 강력한 팬덤이 불황기에도 안정적인 사업 모델을 창출한다고 주장
  - 이를 위해서는 정서적 유대감 유도로 커뮤니티를 만들고 그것을 '팬덤화'시키는 것이 중요
- 고금리, 고물가로 소비 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팬덤을 통한 새로운 수요의 창출은 소비재 및 유통 기업에게 불황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 팬덤 관련 커머스는 유대감과 소통을 통해 고객의 수요를 유발하는 '발견형 쇼핑'의 특성을 지녀 일반적인 '목적형 쇼핑' 대비 경기 민감도가 비교적 낮다는 특성을 지님 

그림9 | 국내 라이브커머스 시장 규모



자료 : Statista, 삼정KPMG 재인용

표3 | 쇼핑의 2가지 유형 : 목적형 쇼핑과 발견형 쇼핑

구분	목적형 쇼핑	발견형 쇼핑
정의	- 결핍(부족)에 의한 쇼핑 -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목적' 대상을 구매하는 행위	- 욕망, 감성에 의한 쇼핑 - (외부 자극에 의해) 수요와 욕망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루어지는 구매 행위
예시	- 가격 검색 및 비교 - 생필품 구매	- 백화점 쇼윈도 - 추천 상품 구매
소비 유발 요인	- 검색의 정확성, 편의성 - 낮은 가격 및 할인 혜택 - 상품 비교 용이성	- 취향에 적합한 추천 - 공감을 유발하는 스토리 - 관심 기반 커뮤니티
특징	- 소비 시장 대부분을 차지 - 구매력 하락, 소비 성향 저하 시기 구매가 위축됨	- 목적형 대비 적은 규모 - 감성적 소비 특성 상 불황기에도 성장 가능

자료 : 하나금융연구소

HIF 월간 산업 이슈  
Monthly Industrial Issue.

 **하나은행** 하나금융연구소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을지로 2가,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8층)  
TEL 02.2002.2200  
E-MAIL [hanaif@hanafn.com](mailto:hanaif@hanafn.com)  
<http://www.hanaif.re.kr>